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7시
오전 (2부) 7시 30분 10시
오후 (3부) 10시 2시
오후 (4부) 2시 7시 30분
금요일전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10시
오전 (2부) 10시 2시
오후 (3부) 2시 7시 30분
주일에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6월 9일 (제693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 럼

걸을 보고 도끼질하라

예전에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 분들을 집에 초대할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어머니 친구 분들 한분 한분께 술을 따라드렸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물론 친구분들까지 놀라는 기색이었다. 목사 집에 간다고 하니까 솔직히 조금 경직되었는데, 목사가 직접 술을 따라주니 "목사가 술을 따라주네." 하시며 좋아하셨다. 나는 그분들이 재밌게 노시다 가실 때쯤, 꼭 예수 믿으시라고 권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그러겠노라고 흔쾌히 대답하셨다.

걸을 보고 도끼질을 하는 것이 지혜다. 걸 방향을 알고 도끼질을 해야 나무가 잘 쪼개진다. 복음을 전하는 일 뿐 아니라 모든 일에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는 것이 옳다.

오래 전 교회 성가대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거기서 유행가를 부른 것 때문에 몇몇 사람이 시험에 들었던 소식이 들렸다. 예배를 드리러 간 것도 아니고 놀러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유행가 불렀다고 죄인가? No! 경건의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즐길 수 있는 것 아닌가.

또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코자 한다면,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사도 바울의 말로 결론을 내린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고전 9:20-21).

진실한 사랑은 진실한 자만이 안다

춘계산상집회는 비록 우(雨)중에 진행되었지만,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모두가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집회 마지막 날, 3일 내내 하늘을 가렸던 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5월의 태양이 기도원 성산에 내리비칠 때, 대성전을 나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았을 행복감이 어땠는지 가히 상상이 간다.

지난 월요일, 기도원을 향하는 중 전국적으로 비가, 곳에 따라서는 폭우가 쏟아졌다. 기도원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목사님을 만난 장로님들은 비가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목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모든 성도들 출지 않게 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다. 가슴이 뭉클하더라. 그리고 기름 값에 쓰시라고 물질을 내놓았다. 일주일 동안 소요되는 기름 값이 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헌금한 액수가 9백만 원이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진실을 토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장로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일순에 기름 값을 해결해주신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목사님은 설교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조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마6:7).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것은 목적 없이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기쁨과 응답을 받고야 말리라는 정신으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한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실컷 해놓고 막상 눈앞에 그 실상이 나타나는데도 인정치 못한다. "남편이 늘 술에 젖어 늦게 들어오다 다투면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20일을 밤낮 부르짖어 남편이 제발 일찍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린 춘계산상집회

"나는 비를 멈춰달라고는 못하겠소. 나는 농부의 아들이요. 수많은 농부들이 이 농번기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터인데, 내가 어찌 집회를 위해 비가 멈추길 바라겠소? 오직 성령의 단비가 내리길 바랄 뿐입니다."

비가 내려서 그런지 밤이 되자 기도원은 서늘하기까지 했다. 목사님은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시면서 기도원 원장이신 권천국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권 목사님, 기름 값 아까지 말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 날씨에 성도들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성도들 모두가 우리 가족 아닙니까?"

목사님은 모든 교역자, 장로 및 재직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권 목사님께 기름 값 아까지 말고

목조목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다.

"나는 이번 기도원 집회를 위해서 조목 조목 기도했습니다. 날씨, 이동하는 차량들, 아랫마을의 협조, 성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 없도록, 또한 숙소 문제로 원망 시비 없이 모두가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하다못해 성도들이 먹을 부식거리 하나하나를 두고도 기도했습니다. 소, 돼지, 닭, 김치, 마늘, 양파, 들기름, 참기름... 그랬더니 기도한 모든 것이 들어왔습니다. 양파도 한 차가 들어오고, 기름도 몇 병씩 들고 오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제책하게 무슨 기도를 그리 하시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은 다 내 기도 덕분입니다."

니다. 그랬더니 20일째 되는 날, 정말로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런 남편을 보고 하는 말이, '내 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당신이 웬 일이지?' 이었답니다. 이 말에 남편이 마음이 상해 다시 밖으로 나가 버렸나요? 아니 실컷 기도해놓고 말로 다 까먹으니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감사함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제 믿음을 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번 춘계산상집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배우는 시간이었다. 이제 들은 대로 깨닫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길 바란다.



전주교인들의 국악 특별찬양



예수 이름으로 목발을 들고 일어나 걸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갔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37:4)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구하라

저는 해외집회에 갔을 때, 그곳 성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그러면 심중팔구, 아니 백이면 백 거의 모두가 이렇게 답합니다.

“믿음요!”, “성령충만요!”,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해요...”

물론 일전 바람직한 대답인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답을 듣는 순간, 한편으로 의분 같은 것이 끓어오릅니다. 왜냐고요? 이는 정말 솔직한 답변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장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일자리도 없어 놓고 있을 만큼 가난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크리스천은 그런 대답을 해야 한다고 무언의 강요를 받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르치는 자의 잘못이 누적되고, 누적되어 크리스천들을 의식하는, 곧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로 변질시켜 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때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구할 것은 돈이며 일자리며 당장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두가 당황한 표정을 짓지만, 저의 설교를 듣고 나면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한 얼굴로 바뀝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만 보아도 그들은 하나님께 진정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모세가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니 모세는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들이 없어 끌탕을 하던 한나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어린이는 부모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지 않는다

까? 오직 아이였었습니다. 입다가 구한 것은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었습니다. 소경 바디매오는 오직 보기를 원했습니다. 수로 보니게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딸의 병 낫기만을 갈망했습니다.

저는 지난 춘계산상집회를 위해 기도할 때, 첫날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고, 첫 집회에 올라가 반드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집회에 임하는 제가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대로 저는 첫 집회에 단에 오르자마자 통성으로 기도를 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집회 역시 기도한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목발을 들고 걷는 역사 속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

다. 또한 집회에 전격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녀는 어떻게 하면 아들이 군대에

전과 날씨, 그리고 성도들이 자빠지거나 넘어져 다치는 일 없도록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천 명이 넘는 성도들을 매일 무료로 먹여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쌀과 부식, 곧 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야채, 양파, 마늘, 고추장, 된장, 들기름, 참기름 등 조목조목 목록을 거명해가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원 원장이신 권천국 목사님도 집회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군요. 주방을 담당하는 집사님을 불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는 종이에 적어 하나님께 불러가며 하나님께 구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난 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마치 이교도들처럼 기복신앙에 빠진 것이라 착각하고



고 오질 않나, 모든 부식이 차고 넘쳐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마6:11)? 이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중언부언 하는 기도, 곧 분명한 목적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마6:7).

일본에서 사역 중인 곽 선교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전에 김경숙 목사가 암을 고침 받기 위해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 안수 받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나도 목사님을 만나 바랄 수 없는 것을 이루어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일본에서 교육 받고 자란 아들이 자기 목회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군대에 가게 돼서 이만저만한 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녀는 어떻게 하면 아들이 군대에

안 가고 일본에 남아 자기 목회를 계속 도울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 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한국법은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일본에 살고 있으니 일본법이 어떠한지 살펴봐라. 만일 네 아들이 일본 여인과 결혼을 하면 일본법에 따르게 되지 않느냐? 네 목회의 성공을 위해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나를 통해 이런 길도 알게 해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해주시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마치 이교도들처럼 기복신앙에 빠진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기복신앙이 위험하니 신비주의가 잘못됐는지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복에 대한 언급이 8천 번 이상 나옵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하였고, 복 주고 복 주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창12:2).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겠더니”(히6:14).

제가 해외 목회자 세미나에서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손들어보라’ 하니 단 한 사람도 손드는 사람이 없더군요. 기복이니 어쩌니 하는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복 싫어하냐고. 아마 그도 분명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니 그럼 저주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

관들의 외식적인 행위입니다. 속은 개차반이면서 겉으로만 의인인 척, 겉으로만 거룩한 척,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가난이 지옥인 사람에게 거지 나사로 이 야기로 위로하며 천국에 가서 편히 쉬라고 말한다면, 그가 과연 예수를 영접하겠습니까? 병에 찌들어 수십 년을 고생

필요한 것을 조목조목 적어서 기도하라

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면 그게 씨알이 먹히겠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곧 기쁜 소식이란 가난한 자에게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는 소식,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침 받는 길이 있다는 소식, 문제에 봉착하여 고통 중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모든 인생의 질고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모든 고통과 죽음을 체휼하신 분입니다. 왜 그랬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 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제발 깨닫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모두가 기도 노트를 만들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하나 적어가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결코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소나무를 자를 때 잘라질 때까지 톱질을 해야지 중간에 힘들다고 멈추면 송진이 나와 더 이상 톱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도하다 포기하면 약한 것들이 달라붙어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는 기필코 응답 받고 말리란 정신으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전들처럼, 저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삶을 관통하는 지혜

동양철학의 효시로 지금까지도 동서양의 정신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자(孔子)의 삶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다. 그가 유년시절에 여러 학동들과 더불어 피리 연주를 배우게 되었다. 선생님이 제시한 곡을 모든 학동들이 열심히 연습했다.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르자 공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동들이 그 곡을 능숙하게 연주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학동들에게 다른 곡을 연습해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자는 다른 곡은 연습할 생각 없이 계속해서 처음 곡만을 연습하는 것이 아닌가? 이를 의아하게 여긴 선생님은 어느 날 공자를 불러 연주해볼 것을 주문한 후, 그의 피리연주가 끝나자 조용히 물었다.

“네 연주를 들어보니 그 정도면 충분한 듯하구나. 이제 다른 학동들처럼 다른 곡을 좀 연습해볼까 어떨겠느냐?”

그러자 공자는 손을 내저으며 아주 겸손한 자세로 말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제자의 고집도 고집이지만 그의 겸손한 태도에 선생님은 더 강요할 수 없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났다. 공자는 어느 날 선생님을 찾아왔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연습해온 곡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 곡을 만든 사람의 고향은 어떤 것 같고, 자라는 환경은 이러하고, 취향은 저러하며, 그가 추구하는 바는 이러하

고...”, 선생님은 공자의 말을 들으며 허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전혀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에 대해 어찌 저리도 소상히 알고 있는 것일까?’ 결론은 자명했다. 하나의 곡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연습하고, 깊이 연구 분석하다보니 작곡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해진 것이었다.

그 후로 공자는 새로운 곡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미 피리연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노후가 터득된 터였는지, 공자의 연주는 다른 학동들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진보해갔다. 비록 처음에는 다른 학동들에 비해 매우 뒤처진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욱 폭넓게 발전해갔다.

대학(大學) 정심장(正心章) 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심부재언 시이불견 청이불문 식이부지 기미(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곧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맛을 봐도 그 맛을 모른다’는 말이다.

시청(視聽)과 견문(見聞)은 같이 보고 듣는 행위를 말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많이 다르다. ‘시청’은 TV를 시청하듯 그냥 흘려보고 흘려듣는 것이다. TV를 볼 때는 웃고, 울고, 즐거워 떠들지만, 볼 때뿐이다. 지나고 나면 다 잊어먹고 만다. 따라서 시청하는 것은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알파하고 자극적인 것만 좇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견문’은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을 넘어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역사와 지식을 망라하여 깊이 연구함을 뜻한다.

목사님과 해외집회에 동행하다 보면 아주 가끔 집회 도시를 돌아볼 기회가 있다. 우리는 대충 지나쳐보는 때가 많은데, 목사님은 건축 사업을 하했던 전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보는 안목이 우리와는 많이 다름을 발견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의 이삭(Isaac) 성전에 갔을 때, 성전 내부 전면에 세워진 돌기둥이 어마어마했는데, 우리는 단지 그 규모와 색채에 놀라 있었지만, 목사님은 통역을 통해 그 돌기둥의 높이가 얼마며 그 돌이 어디서 온 것인지 세세히 묻고 계셨다. 우랄(Ural)산맥에서 채취해온 돌이라는 설명을 들으니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수고가 스며있는지 알 것 같았다. 이처럼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는 시청과 달리 그 이면의 역사와 지식을 얻는 일을

곧 견문이라 하겠다.

아마도 다른 학동들은 선생님의 과제를 기계적으로 연습하였을 것이다. 시청의 자세다. 그러나 공자는 견문의 자세로 곡을 들어다보았다. 듣고, 듣고, 또 들으며 곡을 만든 이의 마음속까지 깊이 들어갔으리라.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듯, 차는 오래 끓여야 제 맛이 나는 법이다. 거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우물을 갈고 파야 마르지 않는 샘을 얻는다. 작금의 세대가 너무 빠르고 조급하여 깊고 높은 성취에 이르지 못하는 세대들을 본다. 절대 조급하지 말 일이다. 멀리 보고 오래 참는 자가 단 열매를 따는 법이다. 어느 한 분야에 달인을 넘어 장인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부단히 정진하는 자세가 명작을 낳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의 삶을 관통하는 참 지혜가 아닐까 한다.

한은택

henry8829@naver.com



::성경에세이::



귀를 기울이세요

공든 탑도 무너지더라!

여보게!

며칠 전, 100년 된 나무 자르는데 시간이 채 10분도 안 걸리는 걸 보고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네. 우리 어려서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나? 그런데 살다보니 공든 탑이 무너지는 꼴을 술하게 보네. 그러니 장담 말게. 계속 점검하며 공 드리지 않고, 나태하게 방심했다가는 제아무리 잘나가던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도 한방에 훅 가더군.

실례로 세계가 좁다던 대우그룹이 IMF를 거치며 어찌 되었단가? 또한 세계에 큰 선풍을 일으키며 승승장구하던 STX의 오늘을 보게나. 뭐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청와대 모 대변인 사건 좀 보게나. 권력의 핵심에서 이제 이 땅에 발붙이기조차 힘든 처지가 되고 말았으니 정말 안타까워야. 이제 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채 오늘에 안주하고 자만하여 스스로를 점검하지 못한 결과 아니겠는가.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보게나. 그토록 겸손하고(삼상9:21) 효자(삼상9:5)이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초심을 잃고 권력에 취하여 하나님의 종도 무시하고(삼상13:9-12), 하나님의 명령

도 망각하더니(삼상15:7-12) 어떤 최후를 맞았는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집투(삼상18:7-9)로 말년을 허비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쓸쓸이 정전(戰場)에서 죽어가지 않았나(삼상31:3-6).

‘아차!’ 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쌓아놓은 신뢰 또한 무너지네. 부부간에, 형제간에, 친구 간에 ‘아차!’ 하는 실수가 인생을 망치자. 믿음에 턱을, 턱에 지식을, 절제와 인내, 경건, 우애, 사랑, 모두 다 점검해가네. 무던 칠 연장은 자주 같이주는 것이 지혜야. 녹슨 연장으로 풀포기조차 자를 수 없네. 내가 무엇에 녹슬어있나 수시로 점검해야 하네. 인생 추락할 땐 날개가 없다는 걸 알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매사 조심해가네. 점검이란 약은 자주 먹을수록 자네 인생에 보약이야. 보약도 건강할 때 먹어야지, 병들어 먹으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된다는 걸 명심하게. 내가 늘 강조하지만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곧 점검이라네. 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오늘, 아니 지금 당장 자네 자신부터, 자네 가족, 친구, 사업, 모든 것을 점검하길 바라네.

朋友

산재석 전도사

blessemdic@naver.com

나보다큰사랑
어떤 사랑은
키가더더욱
하지만다들
이상이요그리파
똑같은영웅하면
재미없어
다재가강한
다른게
키가큰건어려
더키큰건반
더큰건아파트
더더큰건공
더더더큰건거
더더더더큰건하
큰건우리노
그리고하4남



송찬영

::내가 매일 기쁘게::

성공하길 원하느냐?

‘쉬지 않고 꾸준히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마침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우공이산(愚公移山)’. 요즘 TV나 신문을 보면 ‘우공이산’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들이 참 많다. 대한민국 전체를 피겨스케이팅에 빠지게 만든 김연아, 올림픽 종목 중에서 우리에게 생소했던 리듬체조를 세상에 알리며 체조 요정으로 거듭난 손연재, 펜싱의 귀재 신아람과 최병철, 그리고 축구의 박지성과 수영의 박태환을 비롯하여 발톱이 둥게지고 굳은살로 엉망인 발이 알려지면서 아름다운 백조 그 이전의 괴팍이 화제가 되었던 발레리나 강수진까지. 그리고 보면 매체에 이름을 알리는 사람들은 모두 ‘우공이산’의 살아있는 본보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간고사 결과가 좋지 않은 한 학생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계속 나태한 모습을 보이기에 야단을 쳤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지금의 네 모습이 3월 뒤의 모습이고, 결국 3년 뒤의

모습이니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보다 지금 잘해라.”고 했다. 때 아닌 선생 노트에 혼자 뽀듯해 하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날의 훈계는 그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곧 깨달았다. 얼마 전, 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 장학금 1차에 합격이 되었다. 자기소개서와 연구계획서 등 20여 페이지에 달하는 원서를 모두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란 만만치 않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 대략 6~7대 1의 경쟁률로 1차보다 더 어려운 영어 면접과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통과해야 한다. 정말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ppt를 만들고, 발표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왜 그동안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를 반복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다.

학생을 야단치고 돌아와 책상에 앉은 순간,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다. 오래 전, 영어의 중요성을, 특히 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던 많은 어른들의 모습과 선후배

들의 모습이 스치면서 그 때의 나태했던 내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면접을 하루 앞둔 날,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와 발음 교정을 받으면서 나는 또 세삼스레 다짐을 하였다. ‘그래, 지금의 내 모습이 한 달 후, 1년 후의 내 모습이다!’ 후회와 반성, 때늦은 깨달음으로 사무치는 지금, 나의 결심은 우공이 산을 옮긴 것처럼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것이다. 영어 면접의 결과는 모두 다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나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면접에 임하기로 하였다. 생각해보면, 장학금의 당락 여부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우공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신 것이 더 큰 은혜고 감사라고 생각한다. 우공이 산을 옮기는 것처럼,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지금 당장 시작해보자!

전준지

ppjee@hanmail.net

Good News

아동 문학가이자 시인인 정채봉 선생님의 ‘숨 쉬는 돌’이라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조약돌 하나가 냇물 속에 살았습니다. 이 돌은 물속에서 사는 것이 지겹고 따분해서 물 밖으로 나가길 원했습니다. 어느 날, 돌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돌들을 모아서 냇물을 막는 방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약돌은 너무 즐거워서 냇마다 기쁨의 합성을 질렀습니다. 세상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자 여름의 내리쬘

는 뜨거운 태양과 겨울의 차가운 북풍한 설은 조약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부들이 와서 옆에 있던 크고 멋진 돌을 부자집 거실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조약돌은 “나도 사람들이 사는 따뜻한 거실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 어린 소년이 지나가다가 조약돌을 주워가지고 가서 자기 집 거실의 화롯불 속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만, 조약돌은 소년의 등고 길에 언 손과 귀를 녹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 식자 다시 길바닥에 버려진 신세가 되었고, 이리저리 발길에 차이며 굴러다니다가 결국은 시궁창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조약돌은 청소부 아저

씨의 삼 위에 얹혀 땅 위로 다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때 조약돌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어찌면 이 조약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론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다른 것을 소원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당신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마7:11)?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Healing in Music::

서러운 저주가 기쁨의 고백으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우리나라의 노래’ 하면 애국가 다음으로 떠오르는, 심지어 애국가보다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민요 ‘아리랑’이 아닐까한다. 아리랑은 지역별로 다양하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위의 경기아리랑이다. 우리 아리랑은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어있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이다. 중국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소수 민족의 문화를 보존한다는 미명아래 아리랑을 중국의 무형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를 하자, 우리는 이를 빼앗길 수 없어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012년, 아리랑의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이루었다.

이번 춘계산상집회 마지막 날에 두 명의 전주교회 교인들이 거문고와 창으로 하나

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경기아리랑을 흥겹게 불렀다.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아리랑의 가사를 ‘예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내용으로 개사하여 불러 은혜가 더 했다. 아리랑은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의 가사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에 대한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니만큼 그 가사가 한국의 정서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남에게 악담이나 하는 가사라니 말이다. 그런데 이 서러운 저주의 노래도 하나님을 만나니 ‘예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흥겨운 고백으로 바뀌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의 본질이 아닐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두 여인의 이름이 발견된다. 이방여인에다 기생이었던 라합(수2:1~21)은 하나님을 만나 자기 가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다. 이방여인 토티는 어떠한가? 이방여인에다 과부였기까지 했지만 ‘시아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고백(룻1:16)하고 떠나지 않은 끝에 보아스를 만나 역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다.

어디 그들뿐인가? 멀리 가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가? 영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며 그 사랑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다.

김슬아

gratiaseul@gmail.com

Q&A

Q: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공예배시에도 스마트폰으로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웬지 경건성이 없어 보이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책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겉에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던 전도자들이 말을 타게 되었고, 문명이 발전하게 되어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오가며 복음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실시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책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루마리나 양피지에 필사하여 만들어진 성경은 그 회소까지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시에도 예배 인도자들이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쇄술의 발달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면 복음을 담는 그릇이나 전파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진리의 말씀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는 모습이 오랜 교회의 전통에 비추어 보면 웬지 경건성이 없어 보이고 낯설게 보이는 것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문화와의 충돌로 생기는 현상일 것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편리한 시대에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